

붙임 1

에볼라출혈열 질병정보

질병 개요

- 에볼라출혈열(Ebola haemorrhagic fever)이란
 - 필로바이러스과(Filoviridae family)에 속하는 에볼라 바이러스(Ebola virus)에 의한 감염증
 - ※ 처음 발견된 아프리카 콩고 공화국의 강의 이름을 따 명명
- 1976년 아프리카 콩고공화국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, 가봉, 코트디부아르, 수단, 우간다, 콩고 등 6개국에서 24회 발생 보고(12년까지 2,387명 발생)
- 치사율은 25~90%, 자연숙주는 불명확, 백신 및 항바이러스제 없음

감염경로

- 감염된 사람의 체액, 분비물, 혈액 등과의 직접 접촉
- 감염된 침팬지, 고릴라, 과일박쥐 등 동물과의 접촉
- 에볼라 환자 치료 중 개인보호장비(장갑, 마스크, 가운 등) 미착용 등으로 인한 의료진의 병원내 감염
- ※ 증상 발생전에는 감염 전파되지 않음
- 호흡기로 전파되지 않고 혈액이나 체액의 직접 접촉에 의해 전파

주요 임상증상

- 잠복기: 2~21일
- 주요증상 : 갑작스런 발열, 오한, 두통, 근육통 등
- 오심, 구토, 복통, 설사 등 소화기 증상 병발

진단 및 치료

- ELISA, 항원검출검사, 혈청중화검사, RT-PCR, 바이러스 분리
- 증상에 따른 치료

예방

- 예방 백신 부재
-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
 - 환자 발생시 환자의 체액, 가검물 접촉 금지
 -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고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면 즉시 병원 방문 및 격리치료 필요
 - 개인 위생(손씻기 등) 수칙 준수

붙임 2

해외여행 안전수칙

○ **여행 전 준비사항**

-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(<http://travelinfo.cdc.go.kr>) 및 「질병관리본부 mini」 App에서 각종 질병정보 확인하기
- 설사약과 해열제 등 구급약과 모기기피제 준비
- 필요할 경우, 예방접종(황열, 장티푸스, A형간염 등)을 받거나 적절한 예방약(말라리아) 복용하기
 - 황열 : 최소 출국 10일전 예방접종
 - ※ 황열 예방접종기관: 국립검역소(13개소), 국립중앙의료원, 분당서울대병원, 충남대학교병원
 - A형간염 : 예방접종 권고 (2회 접종)
 - 말라리아 : 최소 출국 2주 전 예방목적의 항말라리아제를 복용하되 특히 클로로퀸 내성지역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
 - ※ 말라리아 예방약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와 상담 후 복용
- 여행하는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파악하여 위급시 방문

○ **여행 중**

- 수인성 전염병 예방요령(콜레라, 장티푸스, 세균성이질, A형간염 등)
 - 수시로 깨끗이 손 씻기
 - 끓인 음료수 혹은 병, 캔에 든 안전한 음료수 마시기
 - 익힌 음식물을 섭취하고, 과일 등도 껍질 벗기고 먹기
 - 위생처리가 불결하거나 의심되는 길거리 음식 등은 절대로 먹지 않기
- 모기 매개질병 예방요령(황열, 말라리아, 뎅기열 등)
 -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장, 곤충 기피제를 사용하고 긴 소매, 긴 바지 착용

○ **여행 후**

- 입국 시 설사 및 발열 증상 등이 있을 경우 공·항만 국립검역소에 신고하고 귀국 후 가까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(감염내과) 방문할 것
- 말라리아 예방약은 위험지역을 벗어난 후에도 반드시 적절한 복용법과 복용기간을 준수할 것